

유란시아서

<< [제 115 편](#) | [부분](#) | [내용](#) | [제 117 편](#) >>

제 116 편

전능한 최상위

116:0.1 (1268.1) 사람이 그의 창조자 — 직속 감독자들 — 이 신다우면서 또한 유한하다는 것, 시공의 **하나님**이 진화하며 절대적이 아닌 신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 세상이 불평등하다는 모순은 이제 더 깊은 종교적 역설(逆說)이 되지 않을 것이다. 종교적 신앙은 이제 더, 사회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 불행한 희생자에게 금욕주의적 단념을 권장하는 데만 쓰이면서, 운이 좋은 자의 사회적 자만을 조장하는 데 팔리지 않을 것이다.

116:0.2 (1268.2) 지극하게 완전한 **하보나** 구체들을 바라볼 때, 완전 · 무한하고 절대적인 **창조자**가 이를 만들었다고 믿는 것은 타당하고 논리적이다. 그러나 바로 그 이치와 논리는 어떤 정직한 존재라도, **유란시아**의 소동 · 불완전 · 불공평을 볼 때, 절대 이하이고 무한 이전이고 완전하지 않은 **창조자**들이 너희 세계를 만들고 관리하고 있었다는 결론을 어쩔 수 없이 내리게 할 것이다.

116:0.3 (1268.3) 체험적 성장은 사람과 **창조자**의 협동 관계 —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 — 을 뜻한다. 성장은 체험하는 신의 표시이다. **하보나**는

성장하지 않았다. **하보나**는 있으며, 언제나 그대로 있어 왔다.

하보나는 그 근원인 영구한 신들처럼 실존적이다. 그러나 성장은 대우주의 특징을 나타낸다.

116:0.4 (1268.4) 전능 **최상위**는 동력과 성격자의 신, 살아 있고 진화하는 신이다. 그의 현재 영토인 대우주는 또한 동력과 성격자의 성장하는 영역이다. 그의 운명은 완전이지만, 현재 체험은 성장 요소와 불완전한 지위를 포함한다.

116:0.5 (1268.5) **최상 존재**는, 1차적으로 중앙 우주에서 한 영 성격자로서, 2차적으로 대우주에서 전능한 **하나님**, 동력을 가진 성격자로서 활동한다. 총 우주에서 **최상위**의 3차 활동은 지금 숨어 있고, 오로지 알려지지 않은 잠재 지성으로서 존재한다. **최상 존재**의 이 셋째 발전이 도대체 무엇을 드러낼 것인가 아무도 모른다. 더러는 초우주들이 빛과 생명 속에 안정될 때, **최상위**가 전능하고 체험을 겪은 대우주의 군주로서 **유버르사**에서 활동하고, 한편 바깥 우주들에서 초월적 **전능자**로서 힘을 확대할 것이라 믿는다. 더러는 **최상위**의 셋째 단계는 셋째 수준에서 신의 명시를 수반할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러나 우리 중에 아무도 정말로 알지 못한다.

1. 최상위의 지성

116:1.1 (1268.6) 모든 진화하는 사람의 인격이 겪는 체험은 전능 **최상위**가 체험하는 한 단계이다. 초우주의 모든 물리적 구역을 총명하게 지배하는 것은 전능 **최상위**의 성장하는 통제력의 일부이다. 동력과

성격의 창조적 합성은 **최상위** 지성의 창조 욕구의 일부이며, **최상 존재** 안에서 진화로 성장하는 통일성의 바로 그 본질이다.

116:1.2 (1269.1) **최상위**의 동력과 성격 속성을 통합하는 것은 최상 지성의 작용이며, 전능 **최상위**의 진화가 완성되면 — 신다운 속성을 느슨하게 조정한 어떤 연합이 아니라 — 통일되고 성격을 가진 한 신을 낳을 것이다. 더 넓은 견지에서 볼 때, **최상위**와 동떨어져서 어떤 **전능자**도 없고, **전능자**와 따로 어떤 **최상위**도 없을 것이다.

116:1.3 (1269.2) 여러 진화 시대에 걸쳐서 내내, **최상위**의 물리적 동력 잠재성은 일곱 최상 동력 지휘자 속에 투입되었고, 지성 잠재성은 일곱 으뜸 영 안에서 쉰다. 무한한 지성은 **무한한 영**의 기능이요, 우주 지성은 일곱 **으뜸 영**이 베푸는 봉사이다. **최상위** 지성은 대우주가 조정되면서 사실화되는 과정에 있고, **칠중 신**의 계시 및 달성과 기능적으로 연합되어 있다.

116:1.4 (1269.3) 시공의 지성, 즉 우주 지성은 일곱 초우주에서 다르게 작용하고 있지만, **최상 존재** 안에서 어떤 알려지지 않은 연합 기법에 따라서 조정된다. **전능자**의 자세한 대우주 통제는 순전히 물리적 · 영적 일은 아니다. 일곱 초우주에서 그 통제는 주로 물질적 · 영적이지만 또한 **최상위**의 지적 · 영적 현상도 있다.

116:1.5 (1269.4) 이 진화하는 신의 어떤 다른 모습보다도 우리는 **최상위**의 지성에 대하여 아는 것이 적다. 물어볼 것 없이 그 지성은 대우주에 두루 활발하고, 총 우주에서 활동하는 잠재 운명을 가졌다고 믿어지며, 거기서 활동의 범위는 광대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안다: 체격의 성장은 끝에 다다를지 모르고, 영은 완전히 발육될지 모르지만, 지성은 결코 진보를 멈추지 않는다 — 지성은 끝없이 진보하는 체험적

기법이다. **최상위**는 체험하는 신이며, 따라서 결코 지성의 달성을 끝마치지 못한다.

2. 전능자와 칠중 신

116:2.1 (1269.5) **전능자**가 우주 동력으로서 계심이 나타나는 것은, 진화하는 여러 초우주의 높은 **창조자**와 통제자들이 우주의 행동 무대에 나타나는 것과 같은 때에 일어난다.

116:2.2 (1269.6) **최상위 하나님**은 그의 영과 성격 속성을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로부터 얻지만, **창조 아들**, **옛적부터 늘 계신 이**, **으뜸 영**들의 행위 속에서 동력을 현실화하고 있으며, 그들의 집단 행위는 일곱 초우주에 대하여, 그리고 거기에서 전능한 군주로서, 그의 성장하는 동력의 근원이다.

116:2.3 (1269.7) 시공에서 진화하는 인간은 제한 없는 **파라다이스 신**을 이해할 수 없다. 영원과 무한은 시공의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신 실체를 의미한다. 신의 무한성과 절대적 통치권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안에 본래부터 있으며, **삼위일체**는 필사 인간이 얼마큼 이해할 수 없는 한 실체이다. 우주 관계들을 파악하고 신성의 의미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시공의 인간은 기원 · 관계 · 운명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파라다이스 신**은 **파라다이스** 바깥에서 일어나는 신성(神性)의 성격화를 묶게 만들고 달리 제한하며, 이처럼 **최상 창조자**들과 그 동료들이 존재하게 만든다. 이들은 늘 생명의 빛을, 여러 진화 세계에서 수여 **아들**들이 땅에서 인생을 살면서 빛의 가장

멀고 아름다운 표현을 찾을 때까지, 그 **파라다이스** 근원으로부터, 멀리멀리 그 빛을 가지고 간다.

116:2.4 (1270.1) 이것이 **칠중 신**의 기원이며, 필사 인간은 다음 순서로 이들의 연속된 수준과 마주친다:

116:2.5 (1270.2) 1. **창조 아들** (그리고 **창조 영**).

116:2.6 (1270.3) 2. **옛적부터 늘 계신 이**.

116:2.7 (1270.4) 3. **일곱 으뜸 영**.

116:2.8 (1270.5) 4. **최상 존재**.

116:2.9 (1270.6) 5. **합동 행위자**.

116:2.10 (1270.7) 6. **영원한 아들**.

116:2.11 (1270.8) 7. **우주의 아버지**.

116:2.12 (1270.9) 처음 세 수준은 **최상 창조자들**이다. 마지막 세 수준은 **파라다이스** 신들이다. **최상위**는 **파라다이스 삼위일체**가 체험하는 영 성격이 된 것으로서, **파라다이스** 신들의 자손인 **창조자들**의 초점, 진화적으로 전능한 동력의 체험적 초점으로서, 늘 사이에 낀다. **최상 존재**는 일곱 초우주에게, 그리고 현재 우주 시대에, 신이 최대로 계시된 것이다.

116:2.13 (1270.10) 필사자가 논리를 따지는 기법으로, **칠중 신**의 처음 세 수준의 집단 행동을 체험으로 다시 통일하는 것은 **파라다이스** 신 수준과 대등하게 될 것이라 추론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파라다이스 신은 실존적 신이다. **최상 창조자들**은 그들의 동력과 성격이 신답게 통일된 가운데 체험적 신의 새로운 동력 잠재성을 구성하고 표현한다. 그리고 체험적 기원을 가진 이 동력 잠재성은, **삼위일체** 기원을 가진 체험적 신 — **최상 존재** — 와 불가피하게, 달아날 수 없이 통합됨을 발견한다.

116:2.14 (1270.11) **최상위 하나님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가 아니며, 초우주 창조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모두도 아니며, 그들의 기능적 활동은 그의 진화하는 전능한 동력을 실제로 통합한다. 최상위 하나님은 삼위일체에서 기원을 가지지만, 오직 칠중 신의 처음 세 수준의 조정된 기능을 통해서, 동력을 가진 성격자로서 진화하는 인간에게 표현된다. 영원 속에서 우주의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의 뜻에 따라서 합동 행위자가 번쩍 생긴 것 같이, 전능 최상위는 최상 창조 성격자들의 활동을 통해서 시공에서 사실화되고 있다. 칠중 신의 처음 세 수준에 있는 이 존재들은 전능 최상위의 동력의 바로 그 성질이요 근원이다. 따라서 그들은 늘 그의 행정 행위를 따라가고 유지해야 한다.**

3. 전능자와 파라다이스 신

116:3.1 (1270.12) **파라다이스 신들은 대우주에서 두루, 그들의 인력(引力) 회로에서 직접 행동할 뿐 아니라, 또한 여러 대리자와 다른 명시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활동한다:**

116:3.2 (1270.13) 1. 셋째 근원 중심의 지성 집중. 에너지와 영의 유한한 영토는 **합동 행위자** 지성의 계심으로 인하여, 글자 그대로 함께 유지된다. 지역 우주의 **창조 영**을 비롯하여 초우주의 **거울 영**들을 거쳐서, 대우주에 있는 **으뜸 영**들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참말이다. 다양한 이 지능 초점들로부터 방사되는 지성 회로들은 사람이 선택하는 우주 무대를 대표한다. 지성은 인간과 **창조자들이** 아주 쉽게 조종할 수 있는 신축성 있는 실체이다. 지성은 물질과 영을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이다. **셋째 근원 중심**이 지성을 수여하는 것은 **최상위**

하나님의 영 몸과 진화하는 전능자가 체험으로 얻는 동력을 하나로 만든다.

116:3.3 (1271.1) 2. 둘째 근원 중심의 성격 계시. **합동 행위자**의 지성
계심은 신의 영을 에너지의 형태와 통일한다. **영원한 아들과**
파라다이스 아들들이 자신 수여로 육신화하는 것은 한 **창조자**의
신다운 성품을 한 인간의 진화하는 성품과 통일하고, 실제로 융합한다.
최상위는 지음받은 자이자 **창조자**이다. 그가 그렇다는 가능성은
영원한 아들, 그리고 그와 동급이거나 그에 부속된 **아들**들의 자신 수여
행위에서 드러난다. 수여 계급의 아들, **미가엘**과 **아보날**은, 여러 진화
세계에서 실제로 사람의 생애를 살아 봄으로 그들의 것이 되어 버린,
진정한 인간 성품과 함께 그들의 신다운 성품을 실제로 확대한다.

116:3.4 (1271.2) 3. 첫째 근원 중심의 깃드는 계시. 지성은 영 원인을
에너지 반응과 통일한다. 자신을 수여하는 봉사는 신이 내려오는 것과
인간이 올라가는 것을 통일한다. **우주의 아버지**의 깃드는 분신들은
진화하는 인간을 **파라다이스**에 계신 **하나님**과 실제로 통일한다.
수많은 계급의 성격자에게 깃드는 **아버지**의 그러한 계심은 허다하며,
필사 인간의 경우에 **하나님**의 이 신다운 분신은 **생각 조절자**이다.
신비의 훈계자와 인간의 관계는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와 **최상 존재**의
관계와 같다. **조절자**는 절대 기초이며, 절대 기초 위에서 자유 의지의
선택은 영원자 성품의 신다운 실체, 즉 사람의 경우에는 최후자 성품,
최상위 하나님의 경우에는 신의 성품의 진화를 일으킬 수 있다.

116:3.5 (1271.3) **파라다이스** 계급의 아들이 생물에게 자신을 수여하는 것은, 이 신다운 **아들**들이 우주 생물의 실제 성품을 얻음으로 **아들**들의 성격을 강화하며, 한편 그러한 수여는 바로 그 생물에게 신성을 얻는 길, **파라다이스**로 가는 길을 어김없이 드러낸다. **우주의 아버지**가 **조절자**를 수여하는 것은 의지를 가진 사람의 인격을 **아버지**를 향하여 끌어당기게 만든다. 유한한 우주에서 이 모든 관계에 두루, **합동 행위자**는 지성이 베푸는 봉사의 상존(常存)하는 근원이며, 그 덕택으로 이러한 활동이 일어난다.

116:3.6 (1271.4) 이것과 기타 많은 방법으로 **파라다이스** 신들은, 시간 세계의 진화가 공간의 회전하는 행성에서 펼쳐짐에 따라서, 모든 진화의 결과, **최상위** 성격의 결과가 마침내 나타나는 동안 그 진화에 참여한다.

4. 전능자와 최상 창조자

116:4.1 (1271.5) **최상위** 총체의 통일성은 유한한 부분들의 점진적 통일에 의존한다. **최상위**가 사실이 되는 것은 최상의 요인들 — 여러 우주의 **창조자** · 생물 · 지능 · 에너지 — 가 바로 이렇게 통일됨으로부터 생기고, 또 그러한 통일을 낳는다.

116:4.2 (1272.1) **최상위**의 통치권이 시간이 걸쳐 발전을 거치고 있는 시대에, **최상위**의 전능한 동력은 **칠중 신**이 신(神)으로서 하는 행위에 의존하고, 한편 **최상 존재**와 **합동 행위자** 및 그의 1차 성격자인 일곱 **으뜸 영** 사이에, 특별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듯하다. **무한한 영**은 **합동 행위자**로서 진화하는 신의 불완전함을 보충하며, **최상위**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동한다. 이 밀접한

관계는 어느 정도 모든 **으뜸 영**이, 그러나 특히 **으뜸 영 7번**이, 함께 가지며, 그는 **최상위**를 대신하여 말씀한다. 이 **으뜸 영**은 **최상위**를 안다 — 그와 친히 접촉을 가진다.

116:4.3 (1272.2) 초우주 창조 계획을 예측하면서 일찍부터, **으뜸 영**들은 **거울 영 49명**을 공동으로 창조하는 일에 조상인 **삼위일체**와 함께 하였고, 동시에 **최상 존재**는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및 **파라다이스 신**의 창조하는 자식들의 통합된 행동을 완성하는 자로서, 창조하는 일에 활동했다. **위엄자**가 나타나서, 그 뒤로 늘 **최상 지성**의 우주 계심을 집중하였고, 한편 **으뜸 영**들은 우주 지성이 널리 봉사하도록 근원이자 중심으로서 계속한다.

116:4.4 (1272.3) 그러나 **으뜸 영**들은 **거울 영**들을 계속 감독한다. 일곱째 **으뜸 영**은 (중앙 우주로부터 **오르본톤**을 자세히 감독하는 일에) **유버르사**에 자리잡은 일곱 거울 영과 친히 접촉한다 (그리고 그들을 자세히 통제한다). 초우주 사이 및 초우주 내부의 통제 및 행정에서, 그는 각 초우주 수도에 자리잡은 자기 종류의 **거울 영**들과 거울 작용으로 접촉을 가진다.

116:4.5 (1272.4) 이 **으뜸 영**들은 **최상위**의 통치권을 지지하고 확대할 뿐 아니라, 다음에 그들은 **최상위**의 창조 목적에 영향을 받는다. 대체로, **으뜸 영**들이 집단으로 창조한 것들은 준(準)물질 계급이며 (동력 지휘자와 기타), 한편 개별로 창조하는 것들은 영적 계급이다 (상천사와 기타). 그러나 **으뜸 영**들이 **최상 존재**의 뜻과 목적에 반응하여, 집단으로 일곱 **회로 영**을 낳았을 때, 이 창조 행위에서 나온 자식은 물질이거나 준물질이 아니라, 영적 자식임을 살펴야 한다.

116:4.6 (1272.5) 그리고 여러 초우주의 **으뜸 영**들의 경우와 같이, 이 초월 우주들의 **삼자일치** 통치자 — **옛적부터 늘 계신 이** — 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시공에서 **삼위일체**의 응보와 판단이 이렇게 성격화된 것들은 **최상위**의 전능한 동력을 동원하기 위한, 현장의 지레 받침이며, 이것은 시간과 공간의 영토에서 **삼위일체** 통치권의 진화에 일곱 초점으로서 쓰인다. **파라다이스**와 진화하는 세계들의 중간에 있는 유리한 위치에서, **삼위일체** 기원을 가진 이 군주들은 양쪽을 보고, 양쪽을 알며, 양쪽을 조정한다.

116:4.7 (1272.6) 그러나 지역 우주는 진짜 실험실이요, 그 속에서 지성의 실험, 은하계 모험, 신성의 전개(展開), 인격의 진보가 해결되어 나가고, 우주에서 합계했을 때 이것들은 체험 속에서, 그리고 체험으로, **최상위**가 신의 진화를 성취하는 그 실제 기초를 이룬다.

116:4.8 (1272.7) 지역 우주에서는 **창조자**도 진화한다: **합동 행위자**의 계심은 하나의 살아 있는 동력의 초점으로부터 한 **우주 어머니 영**의 신다운 성격의 지위로 진화한다. **창조 아들**은 실존적 **파라다이스** 신의 성품으로부터 최상 통치권을 얻는 체험적 성품에 이르기까지 진화한다. 지역 우주는 참된 진화의 출발점이요, 예정된 바와 같이, 스스로 공동 창조자가 되는 자유 의지 선택을 부여받은, 진정한 불완전 인격자들이 태어나는 장소이다.

116:4.9 (1273.1) 진화 세계에 자신을 수여하면서 **심판 아들**들은 물질적 인간 성품의 가장 높은 영적 가치와 체험적으로 통일하면서 궁극에 **파라다이스** 신을 표현하는 성품을 얻는다. 이 수여와 기타 수여를 통해서, **미가엘 창조자**들은 마찬가지로 그들의 실제 지역 우주 자녀들의 성품과 우주 관점을 얻는다. 그러한 주 **창조 아들**들은 최상 이하 체험의 완수에 접근한다. 그들의 지역 우주 통치권이 관련된 **창조 영**을 포함할 만큼 커질 때, 그것은 진화하는 대우주의 현재 잠재성 안에서 최상의 한계에 접근한다고 말해도 좋다.

116:4.10 (1273.2)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내는 새 길을 수여 **아들들이** 드러낼 때, 그들은 신에 이르는 이 길을 창조하지 않는다. 차라리 그들은 **최상위의** 계심을 거쳐서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몸까지 인도하는, 진보하는 영원한 대로에 빛을 비춘다.

116:4.11 (1273.3) 지역 우주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성격자, 따라서 우주에서 가장 가파르게 영적 상승을 체험할 수 있고, 자신들을 공동으로 창조하는 데 최대한으로 체험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격자들의 출발점이다. 마찬가지로, 바로 이 지역 우주들은 내려가는 성격자들에게 가능한 가장 깊은 체험을 마련해 주며, 이들은 이 방법으로 **파라다이스**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의 진화하는 인간에게 의미하는 것과 똑같이, 그들에게 의미 있는 무엇을 성취한다.

116:4.12 (1273.4) **칠중 신**이 마침내 **최상위**로 현실화하는 동안에, 필사 인간은 이 신의 집합이 완전히 활동하는 데 필요한 듯하다. **최상위의** 전능한 동력을 진화시키는 데 똑같이 필요한, 많은 다른 계급의 우주 성격자들이 있지만, 여기에 기술한 것은 인간의 훈육을 위하여 제시되며, 따라서 필사 인간과 관계된 **칠중 신**의 진화에 작용하는 요소에만 대체로 국한된다.

5. 전능자와 칠중 통제자

116:5.1 (1273.5) 너희는 **칠중 신**과 **최상 존재**의 관계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았고, **칠중자**가 대우주의 **창조자**만 아니라 통제자들도 포함한다는

것을 이제 헤아려야 한다. 대우주의 이 일곱 가지 통제자는 다음을 포함한다:

- 116:5.2 (1273.6) 1. **물리 통제사.**
- 116:5.3 (1273.7) 2. **최상 동력 중심.**
- 116:5.4 (1273.8) 3. **최상 동력 지휘자.**
- 116:5.5 (1273.9) 4. **전능 최상위.**
- 116:5.6 (1273.10) 5. **행위의 하나님 — 무한한 영.**
- 116:5.7 (1273.11) 6. **파라다이스 섬.**
- 116:5.8 (1273.12) 7. **파라다이스의 근원 — 우주의 아버지.**

116:5.9 (1273.13) 이 일곱 집단은 기능적으로 **칠중 신**과 분리할 수 없고, 이 신 연합에서 물리적 통제 수준을 구성한다.

116:5.10 (1273.14) 일곱 **으뜸 영**이 뭉쳐서 처음으로 집단 창조 행위에 들어갔을 때, 초우주 의미에서 에너지와 영이 (**영원한 아들과 파라다이스 섬**이 공동으로 존재함으로부터 파생되어) 두 갈래로 갈라짐을 상징하였다. 이 사건은 일곱 최상 동력 지휘자의 출현을 입증한다. 그와 동시에 동력 지휘자가 감독하는 물리적 활동과 반대로 **으뜸 영**들의 영적 회로가 구별되었고, 물질과 영을 조정하는 새 요소로서, 즉시 우주 지성이 나타났다.

116:5.11 (1274.1) 전능한 **최상위**는 대우주의 물리적 동력을 자세히 통제하는 자로서 진화하고 있다. 현재 우주 시대에 이 물리적 동력의 잠재성은 일곱 최상 동력 지휘자에 집중되는 듯하며, 이들은 동력

중심들의 고정된 위치를 통해서, 그리고 **물리 통제자**들의 움직이는 계심을 통해서 작용한다.

116:5.12 (1274.2) 시간 지역의 우주들은 완전하지 않다. 그것이 그 우주들의 운명이다. 완전을 위한 싸움은 지적 · 영적 수준만 아니라, 또한 물리적 수준, 에너지와 질량에도 관계된다. 일곱 초우주가 빛과 생명 속에 안정되는 것은 그 우주들이 물리적 안정에 도달했음을 미리 가정한다. 물질의 균형을 마침내 이루는 것은 **전능자**의 물리적 통제가 진화를 마쳤음을 뜻한다고 추측된다.

116:5.13 (1274.3) 우주를 짓는 초기에는 **파라다이스 창조자**들도 1차적으로 물질의 균형에 관심을 가진다. 한 지역 우주의 형태는 동력 중심들이 활동한 결과일 뿐 아니라, 또한 **창조 영**의 공간 계심 때문에 모습을 갖춘다. 지역 우주를 짓는 초기 시대를 통하여 내내, **창조 아들**은 잘 알려지지 않은, 물질 통제 속성을 나타내며, 지역 우주가 대체적 균형을 얻을 때까지 그의 수도인 행성을 떠나지 않는다.

116:5.14 (1274.4) 모든 것을 고려하건대, 모든 에너지는 지성에 반응하며, **물리 통제자**들은 지성 **하나님**의 자식이요, 이 **하나님**은 **파라다이스** 원본을 활성화시키는 분이다. 동력 지휘자들의 지능은 물질을 통제하는 과제에 쉴 사이 없이 전념한다. 에너지의 관계와 질량의 운동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려는 투쟁은, 그들의 영구한 활동 분야인 에너지와 질량에 대하여 유한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결코 그치지 않는다.

116:5.15 (1274.5) 시공에서 영의 투쟁은 (인격을 가진) 지성이 중재함으로 영이 물질을 지배하는 진화와 상관이 있다. 우주들의 물리적 (비인격) 진화는 우주 에너지를 영의 자세한 통제 밑에서 지성의 균형 개념과

조화시키는 것과 상관이 있다. 대우주 전체의 총 진화는 에너지를 통제하는 지성, 그리고 영이 조정한 지능, 이 두 가지를 성격이 통일하는 문제이며, 그것은 **최상위**의 전능한 동력이 완전히 나타남으로 드러날 것이다.

116:5.16 (1274.6) 동태적 균형 상태에 이르는 어려움은 성장하는 우주의 사실에 본래부터 있다. 물리적 창조의 확립된 회로들은 새 에너지와 새 질량이 나타남으로 계속 위협을 받는다. 성장하는 우주는 안정되지 않은 우주이다. 따라서 세월이 충분히 지나서 일곱 초우주가 물질적으로 완성된 것을 입증할 때까지, 전체 우주의 어느 부분도 진정한 안정을 찾을 수 없다.

116:5.17 (1274.7) 빛과 생명 속에 안정된 우주에서는 기대하지 않은 큰 중요성을 가진 아무런 물리적 사건이 생기지 않는다. 물질 창조에 대하여 비교적 완전한 통제가 이루어졌다. 안정된 우주와 진화하는 우주들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아직도 우주 동력 지휘자들의 솜씨에 계속 도전한다. 그러나 대우주가 드디어 진화적 표현의 절정에 가까워짐에 따라서, 이 문제들은 새로운 창조 활동이 줄어드는 것과 함께 차츰 사라질 것이다.

6. 영의 지배

116:6.1 (1275.1) 진화하는 초우주에서는, 성격자의 경우를 제외하고 에너지와 물질이 지배하며, 성격자 안에서는 지성의 중재를 통해서 영이 주도권을 쥐려고 싸운다. 진화하는 우주들의 목표는 지성으로 에너지와 물질을 정복하고 지성과 영을 조정하는 것이며, 창조적이고 통일하는 성격의 덕택으로 이 모두가 일어난다. 따라서 성격과 가지는

관계에서 물리적 체제들은 종속되어 있고, 지성 체제들은 서로 나란히 있으며, 영 체제들은 지휘하게 된다.

116:6.2 (1275.2) 이 동력과 성격의 연합은 **최상위** 안에서, 그리고 **최상위**로서, 신 수준에서 표현된다. 그러나 영의 지배가 실제로 진화하는 것은 대우주의 **창조자** 및 인간의 자유 의지 행위에 바탕을 둔 성장이다.

116:6.3 (1275.3) 절대 수준에서 에너지와 영은 하나이다. 그러나 그러한 절대 수준에서 한 걸음 내딛는 순간, 차이가 나타나고, 에너지와 영이 **파라다이스**로부터 공간을 향하여 움직임에 따라서, 그 사이의 간격은 여러 지역 우주에서 어지간히 갈라질 때까지 벌어진다. 에너지와 영은 이제 더 동일하지 않고 비슷하지도 않으며, 지성이 그것들을 서로 연결지으려고 간섭해야 한다.

116:6.4 (1275.4) 통제 성격자들의 행위로 에너지의 방향이 정해질 수 있다는 것은 에너지가 지성의 행위에 민감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통제하는 바로 이 개체들의 행위를 통하여 질량이 안정될 수 있다는 것은, 질서를 낳는 지성의 계심에 질량이 민감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의지를 가진 성격 안에서 영 자체가 에너지와 물질을 통달하기 위하여 지성을 통해서 싸울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유한 창조가 통일될 가능성이 있음을 드러낸다.

116:6.5 (1275.5) 온 우주 전역에, 모든 물력과 성격자는 서로 의존한다. **창조 아들과 창조 영**들은 지역 우주를 조직하는 데 동력 중심과 **물리 통제자**들의 협동하는 기능에 의존한다. 최상 동력 지휘자들은 **으뜸 영**들의 자세한 통제가 없이 불완전하다. 한 인간 존재에서 육체 생명의 작용은 (개인적) 지성의 지시에 어느 정도 민감하다. 바로 이 지성은

다음에, 의도하는 영의 인도함에 지배될 수도 있고, 그러한 진화적 발전의 결과는 **최상위**의 새로운 자식을 생산하는 것이요, 이는 몇 종류의 우주 실체를 새로이 성격이 통일하는 것이다.

116:6.6 (1275.6) 그리고 부분의 경우와 같이, 전체의 경우에도 그렇다.

완성된 신이 되고 **삼위일체**와 연합하는 운명을 얻기 위해서, **최상위**의 영 몸은 **전능자**의 진화적 힘을 필요로 한다. 시공의 성격자들이 그 노력을 기울이지만, 이 노력이 절정에 이르고 성취되는 것은 전능한 **최상위**의 행위이다. 이처럼 전체의 성장은 부분들의 집합된 성장의 합계이지만, 마찬가지로 마땅히 부분들의 진화는 전체가 의도한 성장이 분할되어 비친 것이다.

116:6.7 (1275.7) **파라다이스**에서, 일력(一力)과 영은 하나와 같다 —

이름이 아니고는 구별할 수 없다. **하보나**에서 물질과 영은 구별할 수 있게 다르지만, 동시에 본질적으로 조화되어 있다. 그러나 일곱 초우주에서 큰 차이가 있다. 우주 에너지와 신다운 영 사이에 넓은 간격이 있다. 따라서 물리적 형태를 영적 목적과 조화시키고 궁극에 통일하는 데, 지성이 활동할 더 큰 체험적 잠재성이 있다. 시간 지역에서 진화하는 여러 공간 우주에는 신성이 더 뭉어지고, 풀어야 할 어려운 문제들이 더 있고 이를 해결하는 체험을 얻을 기회가 더 크다. 이 초우주 상황 전체는 진화로 존재하는 더욱 큰 경기장이 생기게 하며, 그 속에서 우주적 체험의 가능성은 인간과 **창조자**에게 — **최상의 신**에게도 — 똑같이 소용된다.

116:6.8 (1276.1) 영의 지배는 절대 수준에서 실존적이지만, 유한 수준에서, 그리고 일곱 초우주에서 진화적 체험이 된다. 필사 인간으로부터 **최상 존재**에 이르기까지, 이 체험을 모두가 함께 한다. 성취하는 일에 모두가 애쓰고, 몸소 애쓴다. 모두가 운명에 참여하고, 몸소 참여한다.

7. 대우주는 살아 있는 유기체

116:7.1 (1276.2) 대우주는 물리적으로 웅장하고 영적으로 숭고하고 지적으로 위대한 물질 창조일 뿐 아니라, 또한 훌륭하고 민감한 살아 있는 유기체이다. 활기에 넘치는 우주에서 광대한 창조의 기계 작용에 두루, 맥박치는 실제 생명이 있다. 우주의 물리적 실체는 파악할 수 있는 전능한 **최상위**의 실체를 상징한다. 신경(神經) 감각 경로의 망이 인간의 몸을 통과하는 것처럼, 지성 회로들이 물질적이고 살아 있는 이 유기체에 침투한다. 이 물질 우주가 에너지 길로 채워져 있고, 동화(同化)할 수 있는 영양 에너지 산물을 순환하면서 분산함으로써 인간의 몸이 영양과 에너지를 받는 것처럼, 에너지 길은 효과 있게 물질 창조를 움직이게 만든다. 광대한 우주는, 인체의 작용에서 섬세한 화학적 통제 체계에 견줄까 싶은 중심, 훌륭하게 자세히 통제하는 조정 중심들이 없지 않다. 동력 중심의 체격에 관하여 얼마큼 알기만 한다면, 우리는 유추(類推)함으로 물리적 우주에 관하여 너희에게 훨씬 더 많이 알려줄 수 있다.

116:7.2 (1276.3) 필사자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태양 에너지에 기대는 것과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대우주는 물질의 활동과 공간의 우주 운동을 유지하려고 아래 **파라다이스**에서 방사되는 틀림없는 에너지에 의존한다.

116:7.3 (1276.4) 지성은 신분과 인격을 스스로 의식하도록 필사자에게 부여되었다. 그리고 지성은 — **최상 지성조차** — 유한자의 총체 위에 수여되었고, 이렇게 함으로 우주에서 솟아나는 이 인격의 영은 에너지와 물질을 통달하려고 늘 애쓴다.

116:7.4 (1276.5) 대우주가 **영원한 아들**의 널리 퍼진 영 인력의 붙잡는 힘에 반응하는 것 같이, 필사 인간은 영의 안내에 민감하며, 이 영 인력은 시공의 유한한 우주에서 모든 창조의 영원한 영적 가치가 보편적 초물질로 응집된 것이다.

116:7.5 (1276.6) 인간은 자아를, 파괴할 수 없는 총 우주 실체와 영구하게 일체가 되게 만드는 능력 — 깃드는 **생각 조절자**와 융합하는 능력 — 이 있다. 마찬가지로, **최상위**는 절대로 안정된 최초의 신, 곧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에 영구하게 의존한다.

116:7.6 (1276.7) **파라다이스**처럼 완전하려는 사람의 욕구,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사람의 투쟁은 살아 있는 우주에서 신성의 진정한 긴장을 일으키며, 이 긴장은 오직 불사의 혼을 개발함으로 풀릴 수 있다. 이것이 단일 필사 인간의 체험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대우주에서 모든 사람과 모든 **창조자**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도달하고 신다운 완전함을 얻으려고 애쓸 때, 깊은 우주의 긴장이 쌓이며, 이것은 오로지 전능한 동력을 모든 사람의 진화하는 **하나님**, 즉 **최상 존재**의 영 성격의 전능한 힘과 숭고하게 통합하는 데서 해결을 찾을 수 있다.

116:7.7 (1277.1) [유란시아에서 잠시 머무르는 한 **막강한 사자**가 후원하였다.]